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1-44
https://doi.org/10.29212/mh.2020..11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기 노무단의 구성과 활동*

나상철**

1. 머리말

해방 이후 정부수립기는 국제적인 이념 대립과 국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신생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담금질이 한창이었던 시기였다. 특히 국방은 군사조직의 난립과 군 내 공산주의 세력 숙청 등의 혼란과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 1948년 '국군조직

---

* 본 고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전쟁기 UN군 한국노무단(KSC)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법' 시행, 1949년 '병역법' 시행 등 건군의 노력이 병존했다. 그러나 병사구사령부의 해체나 지원병제로의 변경과 같은 병무의 혼란은 상비전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전력 동원 체제 성립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시기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축소를 감행해, 일본 점령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각종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 개전 초 국군의 병역제도는 마비되었고, 미군 역시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실을 맞게 됨에 따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두징집과 같은 전근대적 전쟁 양상이 발현되었다. 특히 민간인 동원은 일제 강점기의 근로보국대를 환기시킬 만큼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군역이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을 기점으로 국가 기능이 가시적으로 회복되면서 동원의 양상도 변하게 되었으며, 그 변곡점은 1951년 7월, 한국노무단(Korean Service Corps, KSC)이 조직되기 전후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KSC는 미군을 필두로 한 UN군의 필요에 따라 태동 및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필요란 첫째,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이 UN군의 작전수행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둘째, UN군을 지휘하는 동시에 군비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던 미군에게 태평양 전역에서와 같이 현지 인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국의 병력을 절약하는 기능적 최적점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노무부대 운영은, 한국전쟁의 거시사적 특수성에 가려져 있던 한 역사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성'[1]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시 노무 동원의 양상을 발굴하고 고찰하는 것은 한국전쟁을 개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단초가 된다.

1) Van Fleet, HOW WE CAN WIN WITH WHAT WE HAVE, LIFE, 1953.

한국전쟁 중 노무인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노무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방법이 대동소이하다.[2] 선행연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KSC의 특성 중 창설 배경이나 구성과 같은, 정책적 범주의 것을 연구의 주요 골자로 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정책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 이를테면 제5군단[3]이 KSC로 전환되는 과정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는 노무 요원을 '영웅'으로 규정하여, 국가와 군이 행정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휘한 강압성이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사사적 관점에서, 한국전쟁에서 운용된 노무인력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주목하여, 노무 정책의 종착점인 KSC의 창설에 이르는 사건과 정책의 연결지점과 개연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로 전쟁의 한 모습을 그려내어 군사사의 기조를 입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

2) 김병곤,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노무단(KSC)에 대하여」, 『군사』 23, 전사편찬위원회, 1991 ; 양영조, 「한국전쟁 시 노무동원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군사』 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 양영조, 「한국전쟁 시 한국노무단(KSC)의 운용과 성격」, 『군사논단』 54, 한국군사학회, 2008 ;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1995.

3) 본고의 모든 "제5군단"은 1951년 5월 5일 창설되어 동년 11월 1일 해체된 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1953년도에 창설된 '제5군단'과 동명이나 다른 부대이다. 1951년 당시 해당 군단 명 뒤에는 "(예비)"를 붙여 구분하였다(육본 일반명령 51호(1951. 5. 2.), 육본 일반명령 93호(1951. 6. 26.)). 그러나 본고는 1953년도의 제5군단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예비)"를 생략한 "제5군단"으로 명명한다.

2. UN군의 노무인력 수요와 한국노무단(KSC) 창설

한국전쟁 개전 초 국군과 미군은 모두 병력부족 문제에 부딪혔다. 국군의 병력부족 원인이 군의 조직화와 인프라의 결여라고 한다면, 미군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의 규모가 급속히 줄어든 상태에서 극동군 내에는 물자와 인력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고 소수의 병력으로 일본 열도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며 교육훈련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는 군수품을 급히 수송해야 했던 전쟁 초기부터 두드러졌다.

낙동강을 연해 전선이 형성되자 군은 어렵게 하역한 물자를 또다시 전선의 첨단으로 수송해야 했는데, 이때 수송 체계의 열악함과 험준한 산악지형은 큰 장애 요인이었다. 때문에 국군은 1950년 7월 초의 계엄령과, 같은 달 말일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조악한 형태로나마 민간인을 노무인력으로 포진시켰다. 그리고 미군은 민간인을 각종 계약 형태로 채용해 전문직으로부터 비숙련 노동에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인천상륙작전으로 UN군이 북진하자 이러한 노무인력 동원 체계는 장애에 부딪혔다. 빠른 속도로 진격하는 UN군에게 물자를 보급하는 데 있어, 앞서 북한군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파괴한 도로망, 전투부대와 함께 기동하는 추진 군수 기지 운영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발생한 많은 군수품의 재보급 필요는 더욱 많은 노무인력 소요를 낳았다. 그러나 기혼인 노무자는 대체로 북진을 희망하지 않았고[4], 피난민 중 고용 또는 징집된 이들은 군과 함께 북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향 일대에서 부대를 이탈하여 인력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남한의 징발 관련 법제를 적용받지 않는 북한

4) 미군과 달리 무임금으로 노무자를 운용한 국군 역시 희망자는 북진 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양양문화원, 『양양의 6·25 비화』, 2009, p.223).

지역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 그 결과, 전투부대로 도달하는 보급수송의 최종 연결고리로 노무인력은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동시에 그 확보가 더욱 긴요해졌다.

1950년 12월 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후임, 리지웨이 장군의 부임으로 작전은 '축차진지 상에서의 방어 작전 반복'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남하하던 전선은 한반도의 종적 중앙에서 고착되어 고지쟁탈전이 시작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대대적인 축성 공사에 돌입하기 위해 1950년 12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며 3만 명의 노무자와 축성 공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음날 미 제8군사령부가 소재한 대구에서 1만 명을 미군에 우선 지원했다.[5] 이러한 일련의 전략적 시의와 더불어 UN군은 노무인력을 전술적 필요에 따라 노무 부대(Labor Unit)로 군 조직화 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미 제8군은 국군이 한국인 노무자를 통제하여 조직 효율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로, 1951년 3월 미 제8군 수송과의 감독 및 통제를 받는[6] 민간인수송단(CTC)을 창설한다.[7] 전선으로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 혹은 인력에 의한 방법을 고려한 결과, 전자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후자의 안이 선정된 것이었다.[8]

---

5) Harold H. Martin, Soldier: the memoirs of Matthew B. Ridgway, Harper, 1956, p.207.

6) EUSAK, Transmittal of Indigenous Labor Policy and new Wage Scales, 1951. 4. 14. ; Lynn Montross,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Ⅳ, US Marine Corps, Historical Branch, 1954, p.86 ; KSC가 창설되면 KSC를 관리하기 위해 미 제8군 군수참모부(G-4) 예하에 노무과(Labor Section)가 신설되자 CTC에 대한 관리도 해 부서로 이관된다(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2000, p.231).

7) 미군이 버마전선에서 활용한 CTC(Civil Transport Corps)와는 이름은 같으나 다른 조직이다(John Grehan, Martin Mace, The Fall of Burma 1941-1943, Pen and Sword Military, 2015, p.196).

8) EUASK,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EUSAK), 1952, p.65.

CTC의 편제는 인가병력은 약 2만 명으로, 각 240명으로 구성된 82개 운수 중대 규모였다.[9] 그러나 3월 말, 실제 충원은 65개 중대 수준에 머물게 되고 동년 8월에는 KSC 창설로 인해 67개 중대, 13,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편성 계획 대비 차질이 발생한 것은 창설 당시는 국민방위군 중 일부의 현역 부적격자로 지목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확보[10]하였으나, 동시에 구성원의 일부를 지원제로 모집했기 때문이었다.[11]

미군의 노무인력 조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 무단결근 및 작업 현장 이탈, 보급 속도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12], 절도와 손실에 의한 보급품 훼손, 인력의 잦은 교체와 같은 일련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은 CTC와 병행하여 노무자를 별도로 고용해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노무인력 운영에 관한 건 일체의 통합 기도에 불합치 하는 것이었다.[13] 그 결과, 미군은 무분별한 고용을 제한하고 더욱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1951년 하절기에 KSC 창설을 구상하고 창설 관련 문서를 동년 7월 14일 배부한다.[14]

---

9)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Ⅰ ch.Ⅲ, 1955, p.17.

10)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88, p.352 ;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p.39 ; 노무자 일부가 개인 의사 확인과 같은 별도의 조치 없이 CTC로, 다시 KSC로 소속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노무자로 있다가 전후방 교류를 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CTC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KSC가 되었어."(진○○ 증언. 의정부 / 구술일시 2018. 7. 11.(목), 12:30~15:30 / 녹취: 나상철).

11)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p.229.

12) JLCOM,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25 August 1950 to 31 August 1951, 1952, p.57.

13) EUASK,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EUSAK), p.67.

14) EUSAK, AG 322 KGL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7. 14. ; EUASK Hq,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EUSAK), p.34.

공산군에 의해 남한 시민이 의용군과 노무인력으로 동원되자, 한국은 다수의 시민이 공산군의 진영에서 부역하는 것을 거부하고 약 50만 명의 예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고 국민방위군을 창설한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은 지휘부의 비리로 질병과 기아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해 1951년 5월 12일부로 '예비병의 유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앞으로 '병역법'에 흡수·보완함'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해체되었다. 그리고 국민방위군은 CTC와 더불어 KSC 계보의 한 축으로 역할이 전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지만, 군은 육본 일반명령 제51호(1951. 5. 2.)를 발령, 해체와 동 시간부로 제5군단을 창설한다. 인원과 장비의 상당수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제5군단은 호국군과 국민방위군의 계보를 이어 예비병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책의 연장 선상에 있었다. 해당 명령 중 관련 내용을 갈무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부대창설

1. 단기4284년 5월 5일 영시부 좌기 부대창설을 확인한다.

부대명	사령부	예하 연대/위치					
제101사단(예비)	마산	101	마산	102	마산	103	진주
제102사단(예비)	통영	105	통영	106	통영	107	삼천포
제103사단(예비)	울산	108	방어진	109	온양	110	서생
제105사단(예비)	창녕	111	창녕	112	밀양	113	청도
제106사단(예비)	여수	115	여수	116	여수	117	순천

부대창설

3-1. 단기4284년 5월 5일 영시부 대구에 제5군단(예비군단) 사령부를 창설한다.

3-3. 편성인원은 해체하는 국민방위국 소속인원으로서 편성한다.

위 명령을 살펴보면 국민방위군과 제5군단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제5군단의 편성인원은 국민방위군의 구성원이 이어서 맡도록 되어 있었고 각 부대의 위치 역시 국민방위군의 그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군단의 편제상 인가 병력은 장교 2,302명, 사병 51,864명[15]이었으나 실제는 인가된 병력을 충족할 수 없었다. 육본 일반명령 제132호(1951. 9. 17.)로 제102·106사단[16]의 과부족한 4개 연대(제105·106·115·116연대)가 해체되자 군단은 사단별 병력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군단의 병력은 다음 작전지시 제58호(1951. 6. 7.)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제5군단장은 신체부적자의 제대가 완료하는 대로 좌기 예비사단을 이동시키라
> 제101예비사단 대구(병력 약 2,000명)을 현 위치 마산부근으로부터 서울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미 제1군단장의 작전지휘를 바드라
> 제105예비사단(병력 약 3,000명)을 현위치 대전부근으로부터 춘천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미 제9군단장의 작전지휘를 바드라
> 제103예비사단(병력 약 2,600명)을 울산 부근 현위치로부터 원주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 미 제10군단장의 작전지휘를 바드라

위 문서는 동년 10월 15일 육본 명령 제149호에 의거 해체되는 제102·106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사단의 부대이동을 지시하고 있다. 각 사단은 각각 2,000명, 3,000명, 2,600명으로 사단의

15) 육본 일반명령 제51호(1951. 5. 2.) 별표.
16) 당시 제5군단 예하의 예비 사단은 '제***예비사단', '예비연대제*중대'로 기술되었다(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70-83, 1985). 본 논문에서는 후일 1952년 3월 13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47호에 의해 부대명이 '예비사단'에서 '근무사단'으로 변경된 것을 포괄하여 '제***사단'으로 통일해 기술한다.

인가 병력 기준인 11,258명 대비 각각 17.7%, 26.6%, 23.0%로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편제 대비 인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각 사단이 창설 한 달 만에 전선의 직후방인 서울, 춘천, 원주까지 이동해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미군의 제5군단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군은 1951년 2월 19일 국군에게 한국인 노무자 추가지원을 요청한다. 이에 정일권 총장은 "국민방위군을 한국인 노무자 대신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는 요지의 답신[17]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영향인지 1951년 3월에 창설된 CTC로 국민방위군의 다수가 차출되었다.[18] 이어서 1951년 4월 15일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부산항에 도착한 밴 플리트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전선을 시찰하며 전황을 파악했다. 이때 야전부대로부터 한국인 노무자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한 건의가 제기 되었고 그 결과, '한국군에 의한 노무자 통제'안 즉 KSC 조직안이 도출되었다.[19]

그런데 이러한 전문이 오고간 후 3개월, CTC가 조직된 후 2개월 그리고 신임 미 제8군의 사령관이 부임한 후 불과 1개월 뒤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고 사실상 이름만 바뀌어 제5군단이 창설되었다. 미군의 입장에서는 노무인력 지원요청에 대한 국군의 국민방위군, 다시 말해 제5군단으로 부대명이 바뀐 국군 예비병력의 지원의사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KSC의 창설 이전이라도 선약에

17) Chung Il Kwon, Major General, ROK Army Chief of Staff, Use of Indigenous Labor, 1951. 2. 21.

18)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p.39.

19)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p.230.

따라 공비토벌에 투입된 제102·106사단을 제외한 제5군단 예하의 3개 사단 즉 제101·103·105사단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군은 부대이동 지시를 통해 3개 예비사단을 각 미 군단의 작전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군은 CTC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고착된 전선에서 미군의 병력을 절약하되, 지휘체계가 강하고 일정 규모를 유지한 노무 조직을 편성하려 한다. 이토록 복합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1951년 6월 13일, 미 제8군 부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5군단을 기간으로 하여 사단별 6개 연대로 구성된, 국문으로는 "한국노무단"[20], 영문으로는 "KSC"[21] 편성을 제시하며 그것을 최단기간 내에 조직해 줄 것을 요청[22]한다. 이 대통령이 이에 응함에 따라 미 제8군 군수참모부는 노무처를 신설하고 기존에 수송장교의 통제를 받던 CTC에 관한 건을 노무처로 이관[23]하는 등 본격적인 창설 작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1951년 7월 14일, 인력 수급 행정 외 보급 일체를 미군이 담당하며 해당 부대는 미군에 '예속'된다는 요지의 KSC 조직에 관한 공식 문건이 하달되었다.

이에 국군은 제5군단을 KSC로 재편해야 했다. 국군은 단지 국민방위군의 후신으로 예비병력 통할을 위해 제5군단을 창설하였을 뿐

---

20) 「주한미제팔군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멧새-지(BA0135213)」, 1951. 6.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21) EUASK, UNCACK, Clothing and Equipage for the Korean Service Corps, 1951. 7. 13.

22) 1951년 4월 한국 정부와 미군 간 협의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단, 동년 12월 28일 미 제8군 참모장 무드 준장이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공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한은 노무자동원에 대하야 귀정부에서 부담○비용에 대해서 빤푸리트 장군에게 보낸 1951년 12월 20일부 귀공한에 대한 면한임니다. (중략) 우리는 1951년 12월 20일부 귀공한에 비추워 1951년 4월 12일부 귀공한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니다."(「일선노무자동원경비배부에 관한건(BA0084189)」, 1952. 5. 24., 소장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23) 김병곤,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노무단(KSC)에 대하여」, pp.242-256.

이며, 선험적으로 군단이 KSC로의 기능적 변모를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각 사단은 3개의 예비 보병연대를 보유하고 있어 미군의 KSC 편성에 합치하는 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군과 미군의 정책 시행에서 시간상 오차는 KSC가 7월이 아니라 더 뒤에 창설되었다는 노무자 출신자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육군은 8월 19일 일반명령 제121호를 하달한다. 이 명령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료상 최초로 "근무군단사령부"를 언급한 것으로 그 창설과 제5군단이 이를 겸하는 점 그리고 3개 사단을 "8월 20일 영시부 좌기 각 사단(예비)을 제5군단으로부터 해편함과 동시에 근무군단에 예속시킨다"는 점을 명령한 것이다.[24] 둘째, 제101 · 103 · 105사단의 연대를 각각 6개로 증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제101사단은 제118 · 119 · 120연대가, 제103사단은 제121 · 122 · 123 · 125연대가, 제105사단은 제126 · 127 · 128 · 129연대가 증설되었다. 그리고 제103사단의 제110연대와 제105사단의 제111연대는 각각 제5군단의 직할로 해편되어 비로소 3개 사단은 미군의 KSC 구성안과 같이 6개 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1년 8월 현재, 미군이 '제5군단 및 예하의 3개 사단'으로 범주를 정한 KSC와 달리 제5군단은 육군본부의 직할로서 국군 부대였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제5군단의 제101 · 103 · 105사단은 KSC이다. 그러나 미군이 '제5군단의 제102 · 106사단과 군단 사령부 그리고 직할대를 제외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

24) 이것은 일면 육군본부 군사감실에서 휴전 후 발행한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에서 "노무자 근무사단은 제오군단 (중략) 일반명령제17호에 의거 단기4284년 7월 15일부로 기술근무사단으로서 창설되었다"(육군본부 군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p.163.)고 한 것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휴전 후 결과론적 관점에서 미군의 이해를 보다 반영한 것으로 추측되나 해당 명령지가 보존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에 '제5군단'은 한미 양쪽에 모두 속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동년 11월 1일부 제5군단이 해체되기 이전 9월 11일, 제5군단의 군수참모처가 KSC의 어려움을 KMAG에 보고하였던 것에서 사실상 군단은 국군과 KSC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5군단이 해체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군단은 차차 해편과 같은 부대 경량화의 과정을 거쳐나갔다. 먼저 육군 일반명령 제132호(1951. 9. 17.)에 의거 제102사단의 제105·106연대와 제106사단의 제115·116연대가 해체되었다. 이어서 육군 일반명령 제148호(1951. 10. 15.)은 제102·106사단을 해체시키고 남은 제107·117연대를 제5군단 직할로 해편시킴으로써 제5군단은 3개 사단과 해체된 연대의 흔적과 같은 제110·107·117연대를 직할대로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육군 일반명령 제160호(1951. 10. 24.)에 의해 11월 1일 부, 제5군단이 해체됨과 동시에, 군단 요원을 기간으로 하여 육군본부 병무감실을 신설한다. 병무감실은 미상일부로 '근무군단'에서 개칭된 "근무단"과 제5군단직할이었던 세 개 연대를 통할하게 된다.[25)]

그리고 후일 육군 일반명령 제47호(1952. 3. 13.)에 의거 각 사단과 연대는 "육군보병제000사단·연대(예비)"에서 "제000근무사단·연대"로 부대명이 개칭됨으로써 제5군단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작전지속지원 부대 즉 온전한 KSC로 자리매김한다.

25) 육군본부 군사감실,『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p.163.

3. 한국노무단(KSC) 조직과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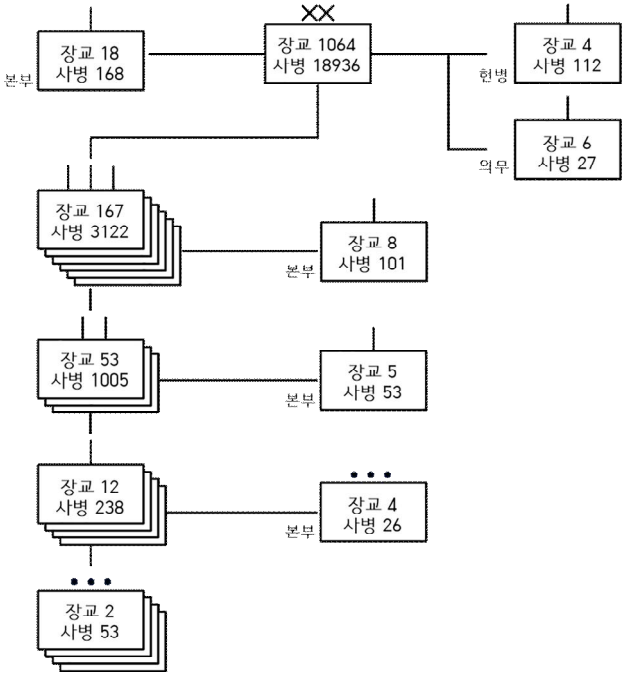
노무인력의 군 조직화 필요에 따라 미 제8군에 의해 창설된 KSC는 CTC를 포함한 미군 작전지역 내 한국인 노무자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노무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1년 9월 대구의 CTC 보충대는 KSC 중앙보충대로 개칭되었고 동년 12월 중앙보충대 파견대가 용산과 인천에 설치되었다. 중앙보충대는 미 제8군 노무과의 감독을 받으며 국군이 운영을 했는데, 일일 100여 명이 노무자를 지원했다.[26)]

가. 조직과 구성

미 제8군사령부는 1951년 7월 14일 KSC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시문을 하달한다.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KSC는 국군 제5군단 예하 3개 예비사단인 제101 · 103 · 105보병사단이 근간이 되어 각각 미 제 1 · 10 · 9군단을 지원하고 CTC는 당분간 그 조직을 유지해 차후에 KSC로 대체한다. KSC의 보급 책임은 미군 병참 부서에 있고 교육훈련 책임은 한국 육군에 있으며, 그들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KSC는 현재 활용중인 미군 내 한국인 노무자까지 취직시켜 사단별 20,000명으로 총 60,000명, 1개 사단은 6개 연대, 18개 대대, 72개 중대, 288개 소대로 구성한다.' 별지에 명시된 각 제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6) EUASK, Labor Sec, Command Report, 1952. 6.

< 그림 1 > KSC 사단 조직도(미 제8군 사령부 안)[27]



하지만 KSC를 현장에서 운용하는 미 제8군 예하 사단은 필요에 따라 그 편성을 조정해 예규에 반영하였다. 현재 확인되는 KSC 관련 미 사단 예규는 미 제40사단 제223연대의[28] 것이다. 위의 < 그림1 > 에서는 인가 인원수와 조직편성만 확인이 가능하나 미 제223연대의 예규는 이를 세분화하여 KSC 중대 및 대대의 조직편성과[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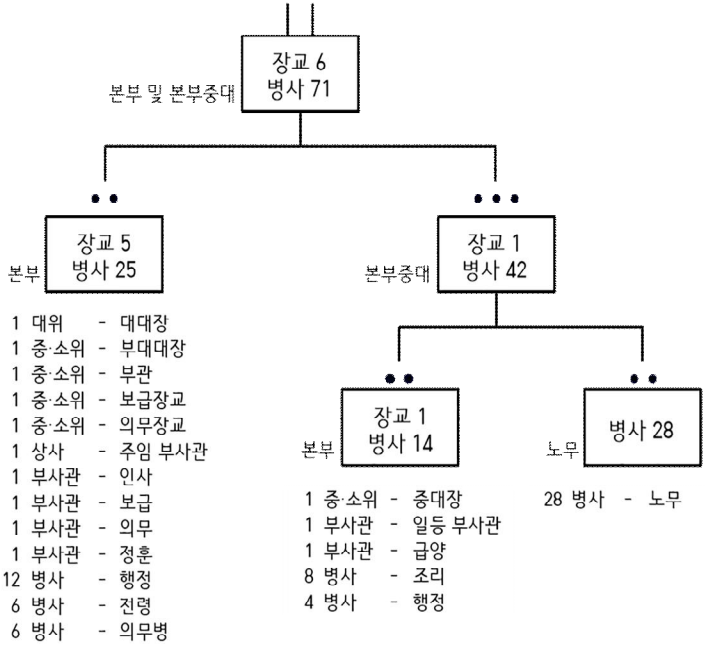
27) EUSA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7. 14.

28) 미 제40보병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창설되었으며 제160·223·224연대와 기타 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 제183포병대대를 한국전쟁 기간 중 배속 받았다. Donald W. Boose,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53, OSPRY PUBLISHING, 2005, p.85.

29) KSC 1개 대대는 미군 1개 연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연대 예규에는 KSC 중대와 대대까지만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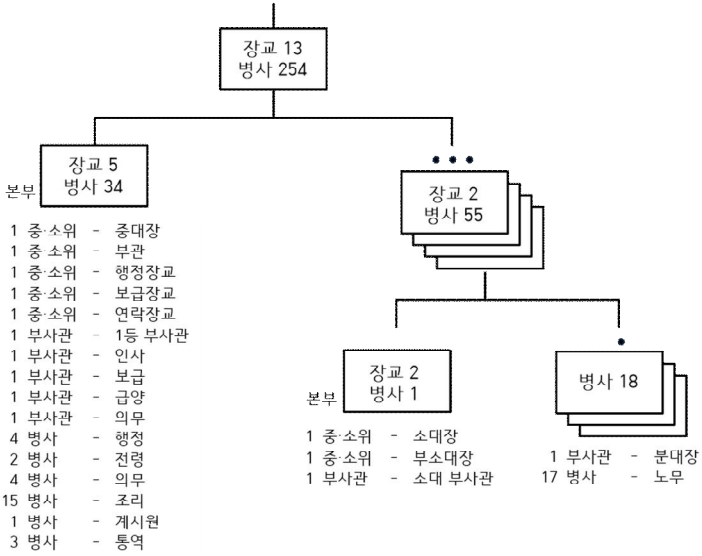
세부 직책을 명시하였고, KSC 및 한국인 노무자와 관련된 부대할당, 기능, 지휘책임, 의료, 휴가정책, 영현등록, 교체, 업무시간, 임금, 식사, 보급, 신원확인 그리고 미군 개인이 직고용한 노무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수립하였다. 이 예규에서 고안된 KSC 편성안은 미 제8군의 안과 조금 상이한데 다음과 같다.

< 그림2 > 미 제40사단 제223연대 지원 KSC 대대본부 조직도[30]



30) RG319 ARMY-AG COMMAND REPORTS FORTIETH INFANTRY DIVISION 340-INF(223) Narrative W/Supporting Doc Mar 1952, ANNEX2, 1952. 3. 10.

< 그림3 > 미 제40사단 제223연대 지원 KSC 중대 조직도[31]



이상의 각 대대 및 중대의 편성표를 살펴보면 미 제8군이 제시한 기준인가 대비(이하 기준) 미 제223연대를 지원하는 KSC 대대의 장교는 45명으로 8명이 감소했고, 사병은 833명으로 172명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예하부대를 보면 대대본부 및 본부중대는 기준 대비 장교 1명, 사병 18명이 각각 증가, 중대는 장교 1명, 사병 16명 증가, 중대본부는 장교 1명, 사병 8명이 증가, 소대는 장교 증감은 없고 사병 2명이 증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준대비 예하부대에 확인된 바를 종합해 보면, 장교 5명(미확인 보직에 3명 추가), 사병 114명(미확인 보직에 58명 추가)을 추가로 할당함으로써 대대 지휘소를 경량화하고 첨단 부대에 인원을 추가로 할당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군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KSC 사단·연대·대대 지

31) RG319 ARMY-AG COMMAND REPORTS FORTIETH INFANTRY DIVISION 340-INF(223) Narrative W/Supporting Doc Mar 1952, ANNEX3, 1952. 3. 10.

휘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정리된 조직 표에 따라 운영된 KSC의 병력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1 > 한국전쟁 중 KSC 인원 현황[32]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1951년	7월	기록 없음	1952년	8월	73,142명
	8월	기록 없음		9월	74,083명
	9월	34,568명		10월	73,947명
	10월	44,932명		11월	73,022명
	11월	60,275명		12월	78,405명
	12월	69,218명		1월	80,906명
1952년	1월	71,808명	1953년	2월	83,384명
	2월	71,493명		3월	89,137명
	3월	69,932명		4월	91,991명
	4월	71,882명		5월	93,154명
	5월	73,294명		6월	91,922명
	6월	74,915명		7월	90,656명
	7월	72,227명		–	–

KSC 인가 인원은 1951년 12월에 64,000명으로 증가한다. KMAG는 이와 같은 인력 증강에 대해 “1951. 12. 까지 KSC가 64,000명으로 늘어나면 앞으로 노무자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33] 그러나 KMAG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한 1951월 10월 시점으로부터 불과 2개월 뒤 KSC 인가 인원은 오히려 75,000명으로 증가한다.[34]

KSC의 인가정원이 75,000명으로 증가된 이후 유동적이었던 근무 기간이 1952년 5월 18일 부 최소 6개월, 최대는 ‘후임 대체

32) EUSAK, Labor Sec, Command Report, 1951. 9. – 1953. 7.
33) KMAG, Augmentation of Korean Service Corps (KSC), 1951. 10., p.3.
34)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ch.Ⅲ, p.20.

인원이 보충이 가능할 경우'로 결정되자, 주 당 3,000명의 공석 소요가 발생했다. 이에 미 제8군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KSC 인가정원을 25,000명 증가시켜 안정을 기도했다. 이렇게 증편됨은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첫째는 미군 내 직고용 노무자 140,000명을 감축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임금을 증설된 KSC로 전환하는 것이었다.[35]

그러나 KMAG가 KSC 4,000명 증가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인 1951년 10월에 집계된 KSC 인원은 위 표에 따르면 44,932명이다. 정책 결정은 극동군사령부의 검토와 결심의 절차가 요구되는 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그러한 소요제기와 본 토의는 최소한 동년 9월경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위 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즉 위 표는 실제 인원보다 약 2～3만 명이 덜 집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쟁의 막바지에 인가인원이 100,000명이 된 이후에도 위 표는 이에 도달한 바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미 육군 군사연구소는 전후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정부는 전쟁기간 동안 한 번도 100,000명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연구서에 기록하였다.[36] 그러나 최근 작성된 미 육군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에는 최대 인원을 133,000명으로[37], 그리고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십여만 이상의 한

35) RG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31, Files: Radios; Histories; Korean Service Corps; Reports. 서신 작성 날짜 미상 ; Hq Eighth Army, Comd Rpt, sec.I, Narrative, 1952. 9., pp.105-106(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p.345에서 재인용) ; EUASK G-4 Col Silliman, G-4 Mission Brochure: Labor Annex, 1953. 10. 30.

36)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ch.Ⅲ, p.21.

37) Lieutenant Colonel Ressell L. Prewittcampbel, The Korean Service Corps, Army Logistician, US ARMY, 1999, p.35 ; Maj. Michael J. Lee, "The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Army Sustainment November-December

국노무자'로 기재[38]한 것에서 기밀로 유지된 노무자 수[39]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행정적으로 집계된 수를 상회하는 인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운영과 관리

KSC 노무자들의 공식적인 임무는 전후에 작성된 미 제8군 군수참모처 임무수행지침서의 노무자 관련 부록에 "KSC는 전선의 전투부대에게 탄약, 연료, 식량, 물 그리고 기타 보급품을 옮겨주기 위해 조직되었다. (중략) KSC는 도로보수, 건설, 기타 미 제8군이 특별히 요구하는 비숙련 노무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실시한다"고 기술되어 있다.[40] 또 미 제40사단 예하 연대의 예규 중 KSC 관련 장에 따르면 "경·중 건설 작업, 정비, 차량 운전, 운송, 들것 운반 등"이다. 그러나 실제는 탄약 및 식량 등 보급품을 전선으로 수송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였고, 수색작전,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전선지휘소 경계, 방치된 적 물자 폭파, 전차 및 차량 연료 보충, 총기정비, 전·사상자 후송,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매립, 의무대 청소, 전투복 바느질, 전투물자 정리, 기타 지시사항 이행 등 작전지속지원의 일체에 투입되었다.[41]

또한 KSC를 조직한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운용형태가 만연하였다. 이에 미 제8군은 수시로 KSC를 사역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서면으로 하달한다. 이 문서에 기록된 사역의 종류는

2014, US ARMY, Logistics University, 2014. 10., p.27.

38) 「기한완료 복무해제; 사회부, 일선노무자대치결정」, 『동아일보』, 1953. 8. 3.

39) 국회사무처,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3회 제14호」, 1952. 7. 28.

40) EUASK G-4 Col Silliman, G-4 Mission Brochure: Labor Annex, 1953. 10. 30.

41) 진복균, 「피난길에 강제 징용된 15세 노무자」, (사)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6·25전쟁 참전수기3』, p.199 ; 진○○ 자서전(미출간), pp.3-15.

‘잡역, 웨이터, 취사보조, 이발사, 세탁, 기타 유사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42] 국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노무자를 군인과 동등대우하고 친절히 취급할 것’, ‘군사작전에 KSC 사용 금지’, ‘진지공사에 관한 사역 엄금’을 더러 지시하기도 하였다.[43]

미군은 KSC를 창설하며 “후일 이 제도는 타지에서 노무 단체가 군을 지원하는데 적용될 것이다”[44]는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로 이전의 노무 조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했지만 초기 운영의 어려움은 있었다. 창설 약 2달 뒤인 1951년 9월 11일 제5군단 군수참모처는 KSC의 어려움을 KMAG에 보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45]

1. KSC 인원 현황
   가. 보병제101사단(의정부): 장교 775명, 사병 9,477명
   나. 보병제103사단(양구): 장교 743명, 사병 6,916명
   다. 보병제105사단(춘천): 장교 793명, 사병 8,719명
2. KSC의 보급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제109연대를 조사함
3. 식사
   가. 문제점: 1인당 4.7홉(1.5파운드)을 지급중임. 70%는 콩과 보리, 30%는 베트남 쌀로 국군보다 0.8홉이 적음
   나. 해결방안: 하루 10시간 중노동으로 위 식사량은 부족함. 한국 쌀 5.5홉으로 인상을 건의함

42) EUSAK, AG322 KLS, Korean Service Corps(KSC) Regulations, 1953. 1. 25.
4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8사단 행정명령 제1호(1953. 1. 9.)」, 『한국전쟁사료』 77, 1985, p.934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9사단 작전지시 제30호(1952. 1. 9.)」, 『한국전쟁사료』 78, 1985, p.499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9사단 작전지시 제149호(1953. 5. 18.)」, 『한국전쟁사료』 78, 1985, p.707.
44) EUSAK, AG 322 KGL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7. 14.
45) ROKA V CORPS G-4, STATUS OF LOGISTICAL SUPPORT TO KSC UNITS, 1951. 9. 11.

4. 기호식품
   가. 문제점
      1) 호박, 감자, 양파, 고구마는 부패하기 쉬움. 소금은 지급되지 않음
      2) 담배가 지난 5일 동안 지급되지 않음. 기준은 1인당 하루에 10개비임
      3) 장기간 보관으로 상한 채소류가 지급됨
      4) 기호식품 보급 제한 시 금전으로 지급이 되나 국군의 절반 수준임
      5) 미군의 재정적 한계로 기호식품이 구입되지 않음
   나. 해결방안
      1) 기본: 채소, 콩, 고기, 생선, 소금 지급 요망
      2) 방안A: 채소를 KSC에 직접 전달
      3) 방안B: 일일 기호식품비 500원 지급
5. 임금: 규정대로 지급됨
6. 피복
   가. 문제점
      1) KSC 창설 문건과 같이 개인 보급품을 미군이 지급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2) 대부분 CTC복 또는 개인복을 입고 있음. 초기 모집된 인원 중 제5군단에서 폐품 전투복을 받은 인원이 일부 있음 (제101사단 2,075명, 제103사단 2,236명, 제105사단 8,881명)
   나. 해결방안: 미군은 문서상 약속한 바를 즉각 이행
7. 숙소 및 텐트
   가. 문제점
      1) 사단 및 연대급 행정부서에만 온전한 텐트가 있음
      2) 대대급 이하 부대에는 텐트가 없어 사실상 숙식을 참호에서 함

8. 의무 관련
   가. 문제점: 부상 시 치료를 위한 진료 기회가 부족함
   나. 해결방안
      1) 연대별 급수 트레일러 1대씩 지급
      2) 환자의 급격한 증가 고려, 외과전문의를 KSC에 배속
9. 기타
   가. KSC 장교에게 필기구가 지급되지 않음. 일일단위 지휘보고가 제한되는 상태임
   나. 해결방안
      1) 방안A: KSC가 예속된 미 군단에서 필기구 지급
      2) 방안B: KSC 자체적인 자금 확보

위 문서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제101사단 배속 KMAG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46]에 따르면 1종 보급은 8월 말일을 기준으로 130~308파운드가 부족했으며, 그 종류는 감자, 호박, 콩류였다. 텐트 문제는 가장 심각했는데 50개가 분배되었으나 인원은 11,000여 명이다. 모포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1,748장이 부족했다. 피복은 파란색 작업복으로 역시 부족했고 우의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동계피복도 부족했다. 의료지원을 위해 KSC 설립 문건에 명시된 대로 민간 의료원으로 후송치료를 해야 하나 병원이 부족해 제한되었다.

KSC를 지원하는 문제가 복수로 접수됨에 따라 1951년 9월 12일[47]과 14일[48] KMAG는 감사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46) 101ST DIVISION KSC OFFICE OF THE CENTER ADVISOR, REPORT ON DEFICIENCIES IN LOGISTICAL SUPPORT OF 101ST DIV KSC, 1951. 9.(날짜 미상), p.1.

47) KMAG, Organization of Inspection Team to Korean Service Corps, 1951. 9. 12., p.1.

안을 제시했다. 먼저 식별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KSC의 사기와 군기가 매우 낮고 탈영과 부상 빈도가 잦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에 대한 보상이 없음
둘째, 노무와 관련된 특별 조치가 없음
셋째, 의무 및 위생시설이 부족함
넷째, 노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음
다섯째, 준비 부족으로 급료 및 보급 지급이 열악함
여섯째,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전선 상황으로 효과가 없었음
일곱째, KSC 대원에 대한 개인근무기록 유지 체계가 없음

이어서 KMAG는 나이, 신체 상태, 환자 여부 등과 보급의 실태로, 음식, 침구류, 옷 등 그리고 숙소와 쉼터, 위생 시설과 부상에 대한 조치, 동계 준비 그리고 기타 문제점을 감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계획했다. 감사 대상은 국군의 경우 제5군단 예하 3개 사단, 미군의 경우 배속 부대 포함, 제1군단 및 예하 제1기병사단, 제3·25사단, 영국 제29연대, 배속 국군 제1사단, 제9군단 및 예하 제19공병대, 제49항공, 제55탄약 대대, 제7·24사단, 제10군단 및 예하 제2사단, 제1해병사단, 제8224공병대, 배속 국군 제5·7·8사단으로 사실상 전 부대에 해당된다. 감사단은 한국의 국방위원회, 사회 및 경제 단체, 사회부, 재정부, 복지부, 국방부, 국군 지휘부, 5군단(예비), UN군, 미 제8군에서 선발을 하고 감사 기간은 1951. 10. 1.부터 20일간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물품 부족에 대한 보고는 끊임

48) KMAG, Support of Korean Service Corps Divisions, 1951. 9. 14.

이 없었다.[49] KMAG와 미 육군 군사감실 또는 미 제8군사령부가 취합한 감사 결과가 담긴 사료는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동일 기간에 미 제1군단 감찰부가 작성한 문건에서는 더 자세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는 KMAG가 계획한 감사 마지막 날인 20일 보다 하루 뒤에 보고된 것으로 미 제1군단과 예하 부대에 대한 감사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50]

1. KSC는 주요 군수지원을 군단으로부터 전량 받음. KSC를 배속받은 연대 또는 대대의 관심이 소홀해지면 그들은 생필품을 조달할 수 없음
2. 공통 문제점: 동계 피복, 텐트, 음식, 파란색 작업복
   가. 부대형 텐트에서 36～60명이 취침중임. 기준은 18～36명임
   나. A형 텐트에서 4명이 취침함
   다. 파란색 작업복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이 존재함. 이유는 이 복장이 일본 강점기 때 죄수복을 연상시키기 때문임
3. KSC 오·남용이 식별됨
4. 기타 한국인 노무자는 필수 요원에 한해 최소한으로 고용해야 함
5. 한국인 노무자에 대한 지침 부족으로 각 사단에서 KSC와 일반 노무자를 동시 활용중임. 일반 노무자는 기술직 또는 사역을 위해 고용됨
   가. 미군 부대별 추가 고용 노무자 현황
      1) 제1군단 사령부: 269명
      2) 제5기병연대 114명, 제7기병연대 790명, 제8기병연대 354명을

49) EUSAK, Additional Requirements for Winter Clothing for Korean Service Corps, 1951. 10. 12.
50) HQ I CORP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 Corps IG Survey of Indigenous Labor, 1950. 10. 21., pp.3-20

3) 제3사단: 2,129명

4) 영연방 제1사단: 908

나. 관련 지시: 1군단 예하 부대는 KSC 외 필요한 노무인력에 대해 1951. 10. 31.까지 보고

6. 해결방안

가. 동계 피복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나. 텐트를 추가로 보급하고 텐트별로 36명씩 취침을 시킴

다. KSC의 중요성에 대한 장병 대상 교육 강화

7. 추가사항

가. 미군이 KSC 대원을 임의로 활용하며 KSC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음

나. 전방에서 작업하던 대원이 적에게 납치됨

다. 일부 대원은 식기가 없음

라. KSC 불만사항: 식량 부족, 파란색 유니폼, 9월 담배 미보급, 의료지원 부족, 부대 방호를 위한 총기 요청

유일하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임금에 관한 것이었다. 각종 구술 증언 그리고 여러 형태의 회고록에서도 임금에 관한 부정적인 지적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국군보다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선에서 그칠 뿐이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계약형태의 노무자가 아닌 동원된 노무자의 손에 임금이 쥐어진 것은 CTC에 관한 사료가 부재함을 고려해 이를 배제 시, KSC부터이다. 직능과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51] 매달 말일 현금으로 받은 임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KSC의 임금표는 다음과 같았다.

51) 김영규,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철원 주민 20인의 구술사』, 진인진, 2018, p.70.

< 표 2 > KSC 임금표(단위: 원) [52]

계급	임금	계급	임금	계급	임금	계급	임금
대장	90,000	중령	51,300	준위	32,100	상병	4,500
중장	72,000	소령	46,500	상사	26,100	일병	3,600
소장	66,000	대위	38,100	중사	24,300	이병	3,000
준장	60,000	중위	35,700	하사	6,600	–	–
대령	56,100	소위	33,300	병장	6,000	–	–

* 미군 계급체계를 기초로 작성되어 당시 국군의 계급체계와는 다르다.

구체적인 임금액은 조사자 및 피조사자마다 그리고 미군의 사료마다 서로 다르다. 대부분 급여가 인상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이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수치가 계속 변동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단위가 환으로 변경된 시점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구술 증언도 서로 달라 임금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노무자는 직능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1951년 4월 16일 부로 하달 된 미군 내 직능별 임금표 기준 시급 약 300원을 받았다.[53] 또 각 참전자의 구술에 근거하되 규정과 달리 KSC는 매일 초과 운용되었고 운용시간도 불규칙했기[54] 때문에 당시 임금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52) UNCACK, Payment of the Korean Service Corps, 1951, p.49.

53) EUSAK, Transmittal of Indigenous Labor Policy and new Wage Scales, 1951. 4. 14.

54) 「노무사단은 이렇게 싸운다(하)」, 『동아일보』, 1953. 5. 6. ; 조덕제, 「평생을 실탄 추진 못한 죄책감에」, 『6·25전쟁 참전수기3』, pp.286-289 ; Interview (1951. 8. 7.), Captain Davis L. Mathews, 69th Ordanance Ammunition Company, Commanding Officer, Supply battle of the Soyang river, 10 May-7 June 1951, OCMH, p.1 ; EUSAK Hq Labor Sec, AG200.3 KLS, Study on Mobilization of Manpower, 1952. 2. 12., p.10.

① “처음에 $20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예비사관학교 1기 김○○·이○○[55])

“월 $20에 해당하는 한국 돈을 그들 가족에게 지급했다.”(밴 플리트)

◦ 기간: 1951. 7.–1953. 2.[56]　　◦ 환율: 1$ = 6,000원

◦ 임금: 6,000 × $20 = 120,000원

② 화폐 단위 변화 + ①

◦ 기간: 1953. 2.–1953. 5.　　◦ 환율: 1$ = 60환

◦ 임금: 60 × $20 = 1,200환(1환 = 100원[57] / 120,000원)

③ 미 임금표 상 ‘중강도 노동자 Ⅰ형’ 시급 310원[58], 일일 8시간 및 주 7일 근무

◦ 기간: 1952. 6.–1953. 7.

◦ 임금: 310 × 8H × 30D = 74,400원

이상을 종합해 전쟁 당시 군인의 봉급 인상에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KSC 대원의 당시 임금은 약 100,000원 전후로 판단된다. 이 수치는 KSC가 한국군 장성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언급에 무게를 둔 것이다. 또 1951년 11월 미 제1군단이 2개월간의 단기 노무자를 모집하며 제시한 임금이 월 90,000원[59]이었던 것과도 맥락이 닿는다. 그러나 미 제8군 노무장교 보좌관이

55) 김○○·이○○ 증언(예비사관학교 1기), (서울 / 구술일시: 2018. 7. 31.(화), 14:00~16:30 / 녹취: 나상철).

56) 같은 기간 임금은 항구 직고용 노무자는 90,000만원(15달러), 항구 계약 노무자는 200,000원(33.4달러)이었다(2nd Log Comd, Procurement, Monthly Summary, 1952. 5., p.2).

57)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와 경제」, 2017. 1. 2., p.12.

58) EUSA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10. 3., p.21.

59) 「노무원모집 제1군단서 의뢰」, 『조선일보』, 1951. 11. 4.

작성한 195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기간 KSC 노무자에게 지출되는 총 금액 중 급여는 94달러였다.[60] 이를 당시 환율인 1달러당 6,000원으로 환산한 후 12개월로 분할하면 월 임금 47,000원으로 계산된다. 94달러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한국군 장성보다 많다는 코멘트와는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군 대위와 중위(KSC 중대장)의 급여인 약 38,000원과 36,000원을 상회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61]

4. 진중 노무와 한국노무단(KSC)의 성격

미군의 한국인 노무인력 운용과 관련된 제도의 확대와 KSC 노무자를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 그리고 지휘체계 확립 노력은 과거 직고용 및 계약 노무자 또는 CTC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엄정한 군 기강 확립'으로 발현되었다.[62] 그러나 그들의 지위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경향과 추세를 조감할 수 있을 뿐이다.

전쟁 당시 KSC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면모와 동료애와 같은 긍정적 면모가 공존하고 있었다. 노무자에 대한 배제와 소외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된다. 노무자의 임무수행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63]에도 불구하고 '전시근로동원법' 상 동원 기한인 6개월, 그리고 17세 이상 4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이 지켜지는 경우

60) AFFE,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1951-July 1953, 1954. 9. 15., p.36.
61) 이송만, 조선일보사, 『민족의 증언』 7, 1983, p.74 ; 백대현, 『녹슨 파편의 사연들: 나의 6·25 이야기』, 이야기너머, 2015, p.217.
62)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a research approach,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pp.88-89.
63) 「이대통령 일행 노무사단등도 방문」, 『경향신문』, 1953. 7. 19.

는 드물었다.[64] 국방부는 이러한 실태와 개선 요구에 “능률이 오르지 않아 할 수 없다”[65]며 일축하고 일선의 노무자를 방기했다. 육군 또한 연령 부적격자 모집에 대한 미군의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노무에 적절한 신체조건 하에 있으며, 후일 병무감실을 통해 인원을 교체하겠다’[66]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군은 제5군단과 근무군단이라는 군단급 부대 창설 및 해체의 계보와 주요직위자가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인 점, 그리고 인원의 모집과 편성, 인사행정을 육군이 통제하며 구성원에게는 군법과 육군규정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KSC를 국군 예하의 특수 군사조직으로 간주했다.[67]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육군예비병력에 가산되지 않는 무편제의 특수부대’[68]라는 모순 속에 놓여 있었음에서, 이들은 일전의 청년방위대나 학도호국단과 같은 군역 범주 밖의 타자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 역시 KSC를 CTC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기간 장병만이 국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병인 점 그리고 구성원의 대다수는 민간인임에 주목해 한국군과 다소 독립된 준군사조직으로 이해했다.[69]

미군은 때때로 KSC 대 미군 간의 협조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KSC 대원을 무단으로 활용하였고, 미군이 KSC 장교를 하대하고

---

64) 「대상은 40세까지 노무동원 방안 결정」, 『조선일보』, 1951. 10. 28. ; 「노무동원 방안에 異狀! 인원부족으로 50까지도」, 『조선일보』, 1951. 10. 30.

65) 「영양부족목불인견 노무사단실태 국회조사단보고」, 『동아일보』, 1953. 5. 24.

66) EUSAK Labor Sec, Recruiting Age for Korean Service Corps(KSC), 1951. 11. 28.

67) KMAG Hq,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 Division, 1951. 6. ; 육군본부 군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p.163 ; KSC 창설식 간에 부임한 방위장교는 KSC는 ‘군인이나 마찬가지’ 라며 훈시했다(진○○ 증언).

68) 육군본부 군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pp.163-167.

69) Lieutenant Colonel Ressell L. Prewittcampbel, The Korean Service Corps, Army Logistician, US ARMY, 1999, p.34.

노무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거나 물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70] 당시 제101사단에서 중대장을 역임한 한병종은 대개의 미군은 노무자들을 후대하고 동정했으나 간혹 인종차별이 발생해 미군과 대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피란살이에 시달려 자원입대한 지식인들은 미군들의 멸시와 차별에 몹시 흥분했다고 증언하였다.[71] 미군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군법회의로써 노무자를 남용하거나 구타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72]

KSC는 의식적 하대와 오·남용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능력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미 의무부대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을 고용하거나 KSC를 할당받아 운용했다. 의무부대의 KSC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부정적 평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KSC는 훈련되지 않았으며, 전투 상황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미진하고, 임무 수행에 대단히 무관심하다”, “KSC를 후송병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효율이 극히 낮다. 적의 사격이 있을 때 KSC는 첫 번째 후송 임무 후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미군이나 KATUSA로 밀착 감시를 해야 한다. KSC는 밀착 감시 하에 노무 그룹으로서 진지보수, 물자운반에 가장 적합했다”. 의무부대의 이러한 평가는 KSC를 의료 관련 업무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73] 또 미 제8군사령관 밴 플리트의 전기에서는 미 제7사단의 러셀고지 공격작전 간 한국인 노무자들의 임무수행 거부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접근을

70) EUSAK, HQ Ⅰ CORP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 Corps IG Survey of Indigenous Labor, 1951. 10, p.4.
71) 한병종, 조선일보사, 『민족의 증언』 7, 1983, p.75.
72) 김진휴, 『山河』, 정민사, 2012, p.86.
73) EUSAK,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The regimental medical company in Korea, vol.Ⅱ, 1953. 6., pp.21-24.

허용하였다[74]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다분히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 부대는 그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부대에 끼어 싸우기를 꺼려”[75]한다는 당시 노무자들의 목소리는 함구된 것이었다.

또 제임스 버쳐(James Butcher)는 KSC의 단점을 다수 지적했다. 그는 KSC의 일상적인 임무가 미군이 적에게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KSC가 ‘조직화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전선에서 적군과 노무자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노무자를 가장한 적 오열의 침투와 적에게 투항하는 노무자로 인한 것이었다.[76] 이것은 노무자를 반은 적군으로 간주한 것으로 전장 스트레스로 공황에 빠진 노무자에게 ‘빨갱이 자식’(“You commie bastards!”)[77]이라고 다그치고, 전투간에 희생된 노무자를 적이라 하여 가매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78]에서 노무자를 공산군과 연계 또는 동일시하여 인식하는 일련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한국전쟁기 미군 영내의 물질적 풍요는 미 육군성이 후일 지적[79]한 것과 같이 이전의 전쟁과 다른 특징이었다. 미군의 참호에는 라디오와 난로, 아이스크림이 지급되었다. 또 어느 전쟁에서보다 많은 복지시설이 설치되었고 식량도 풍족했다. 때문에 그들은 전투식량을 수당으로 하여 노무자들을 사역에 활용하거나, 선호하지 않은 음식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KSC 대원에게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

74) Paul F. Braim, The Will to Win, Naval Institute Press, p.289.
75) 육군예비사관학교 총동문회, 『豫友文集』, 2000, p.252.
76) James Butcher, Korea, Hellgate Press, 2013, p.101.
77) James Butcher, Korea, p.241.
78) 이장성 증언. 김영규,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p.143.
79)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I ch. I , pp.3-4.

에서 동정심이나 선의의 여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의 저변에는 의도하던 하지 않았던 간에 '궁핍함으로 음식이 긴요한 한국 사람들'[80]이라는 인상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KSC를 한국인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는데, 그 증언 속 한국인 즉 KSC는 극도의 궁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 그곳에는 전투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KSC였다. (중략) 후술하겠지만 서울에서 자유시간을 하루 갖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한국 여성과 온종일 보냈는데 유일하게 만났던 다른 현지인은 KSC였다. 내가 본 바로는 그들은 너무도 가난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아이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무엇이든 달라며 구걸했다.[81]

이처럼 미군의 눈에 비치는 KSC의 모습은 하찮은 일을 하는 짐꾼 또는 하인이기도 하였다. KSC 인솔 및 경호 임무를 수행했던 라이트(Jack E. Wright)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일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같은 하잘 것 없는 군사임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본다면 내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했다"고 술회했다.[82]

노무자들의 지위는 호칭에서도 확인된다. 호칭과 같은 일상 언어는 집단의 사유체계를 대변한다. 한국인은 KSC를 '총알받이', '지게부대'라고 불렀고 그것은 '잡혀가는' 것이었다.[83] 국군은 대부분의

---

80) Robert Carroll Janes증언. http://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janes (검색일 2018. 7. 15.).

81) Pete Rendina 증언. http://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rendina (검색일 2018. 7. 18.).

82) 안토니 바벨, 데이비드 로차드슨, 아서 윌슨 저, 김남형 역, 『한국전쟁, 미군 병사들의 기록』, 도서출판백암, 2008, p.35.

83)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280.

노무자가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였기 때문에 대체로 이들을 “아저씨”라고 불렀다.[84] 위선과 위악 그리고 적의의 여하와 별개로 미군은 편의상 노무자를 한국말로 “이리와(comehere)”를 뜻하는 “itiwas(eeteewas)”[85] 또는 “Choggies”[86]로, 영국군은 세탁 노무자를 “워시-워시(Washy-Washy)”[87]라고 칭했다. 1966년 미 육군 군사연구소는 한국전쟁 공간사에서 KSC를 즐겁지 않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servant”)으로 표현하였다.[88]

그러나 갈등과 마찰이 긍정적인 관계맺음보다 일반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증언과 관찰에서는 KSC와 미군의 상호에 대한 호의적 모습이 훨씬 풍부하게 발견된다. 그것은 음식을 함께 나누었던 경험, 미군이 비정기 소독으로 DDT를 뿌리거나 영양주사를 놓아준 경험, 미군 영내에 남는 음식물을 마을에 나누어준 경험, 미군 물품을 한국 시장에서 한식으로 교환해 노무자에게 제공한 것 등등이다. 또 어려운 전투 현장에서 노무자가 군 장구류도 없이 전투를 함께한 사례는 각 부대에 귀감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국군을 포함한 UN군과 KSC는 결코 상리공생의 도식적 관계구도가 아니었다. 일련의 동정심과 관용적 이해가 읽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KSC의 구성원 특히 민간인 노무자에게는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상태였음에서 알 수 있다.

KSC에 대한 의식구조는 대체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

84) 유○○ 증언(서울 / 구술일시 2018. 8. 14.(화), 12:00~14:00 / 녹취: 나상철)
85) John Hoskins 증언. http://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hoskins_john (검색일 2018. 7. 15.).
86) Dudley Hughes, Wall of fire, Hellgate Press, 2003, p.95 ; James Butcher, Korea, p.101.
87) Andrew Salmon, To the last round, Aurum, 2009, p.94.
88)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374.

노무자를 관찰한 개인적 경험 축적의 형성물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따라서 그것은 일방향적 사유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못한 서발턴 즉, 노무자들의 가치와 심리는 다분히 침전되고 망각된 것이다. 국군 역시 신역(身役)에 동원된 전시 노무자를 인적자원 경시 풍조와 전시 기록의 미진으로 준거적 역사 그리고 그 관련 기억의 말단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KSC는 한미동맹의 교량이었음과 동시에, 미군 수뇌부에게는 자국의 군비와 군 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89]이었으며, 한국 정부에게는 국군의 특수 군사체로서 예비병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노무에 총동원할 수 있는 기저조직이었다.

5. 맺음말

본고는 한국전쟁기에 원활한 군사 행정과 전선의 전투를 가까이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무 동원을 한국노무단(KSC)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시 노무자가 군사사적 맥락에서 자발성과 영웅화의 코드 그리고 민중사적 맥락에서 전시 희생의 아이콘이 되어 각각의 분야에서 캐치프레이즈화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들이 활용되어야 했던 배경과 그 경과를 조감함에 논점을 집중하였다. 이하에서는 논지의 요약과 더불어 결론을 도출한다.

---

89) Edward C. Keefer(United States. Dept. of State),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lark) to the Joint Chiefs of Staff(1953. 5. 2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15, Korea, pt.1,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1114 ; Edward C. Keefer(United States. Dept. of State),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lark) to the Joint Chiefs of Staff(1953. 6. 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15, Korea, pt.2, pp.1152-1154.

노무 운용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동원형 노무자이다. 이것은 이른바 지게부대의 효시로 산악이 발달한 한반도의 특성상 참호가 있는 전선의 각 요점까지의 보급을 위해 차량과 같은 기계화 수단이 아닌 인력을 활용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직고용 노무자로 이들은 부대의 수요에 따라 해당 부대·개인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임금 역시 고용자에 의해 지급되었다. 세 번째 계약 노무자는 미군이 발주한 계약 건에 따라 선정된 민간업체가 노무자를 조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노무자 형태는 의사소통 및 물자손실 등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전시 군수 인프라의 열악함,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낙동강 전선이 붕괴되어 UN군이 급히 북진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항구와 낙동강 인근에서 활용된 노무자의 다수는 피난민이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노역에 자원한 이들이었다. 부대의 북진 간에 기혼 노무자를 잔류시키며 1차 인력 상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난민으로 노무자에 지원한 이들이 자신의 고향 인근에서 부대를 이탈함으로써 2차 인력 상실이 야기되었다. 또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북한지역에서는 계엄령이나 1950년 7월 26일 시행된 징발 관련 법령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현지의 노무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노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대량의 군수물자를 방기하고 지연방어로 전환해 급히 철수하게 되며 보급 요구와 보급 지연의 악순환이 다시 반복 되었다. 또 38선 일대에서 전선이 고착되어 참호전에 돌입하게 되자 낙동강 전선에서와 같이 산악의 각 요점에 위치한 진지로 물자를 직접 수송할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해 졌다.

1951년 3월, 미군은 노무자를 활용한 여러 경험을 갈무리하여

‘한국군에 의해 통제되는 노무자 단체’에 방점을 찍은 준군사체, 민간수송단(CTC)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은 국민방위군의 일부를 흡수한 것 외에는 지원제였기 때문에 계획 대비 60%의 인력만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앞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언어문제, 물자 도난, 부대이탈 등의 문제와 부대 및 개인이 노무자를 직접고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여 노무자 운용의 집권화와 일체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미군은 ‘한국군에 의해 더욱 강력히 통제되는 노무 조직’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국민방위군 해체 및 제5군단 창설의 시의와 합치되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즉 1951년 2월 미군의 노무자 요청에 국군이 국민방위군 지원 의사를 밝힌 점, 3월에 CTC가 창설된 점, 5월에 국민방위군이 해체되고 제5군단이 창설된 점 그리고 6월 제5군단 예하 3개 사단이 미군의 각 1·9·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부대이동을 하고 7월에 비로소 한국노무단(KSC)이 창설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KSC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창설 직후부터 의식주의 열악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각종 사역에도 운용되어 그 불안전한 지위로 말미암아 미군과 갈등이 불거졌고, 국내 언론은 연신 관련 문제를 타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도 서로 정을 나누고 의지하는 경우도 다분하였다. 이러한 복잡성은 KSC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넓게는 당시 UN군에 고용된 노무자에 대한 인식을 긍정과 부정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정할 수 없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사례와 기억의 재현을 논의해 한국전쟁기 노무자의 지위를 ‘전쟁의 숨은 영웅’ 또는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시민’으로만 해석하는 것 보다는 이들 노무자 운용 실태와 그들의 생

활 양상을 조명하고 직시하여 해당 조직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KSC는 국군과 미군의 다층적 시의에 따라 급조된 한계로 고유의 지위가 불분명 했으며 따라서 그 구성원 모두는 제도권 밖에 위치하여, 끊임없이 타자로 내몰리는 압박과 소외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KSC는 한미동맹의 교량이자, 무제한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국가지도부의 총력전 의지를 담지한, 전시 동원 제도 도입기 국민을 원활히 통제하기 위한 노무 상비군이었다.

(원고투고일 : 2020. 4. 3, 심사수정일 : 2020. 5. 13,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한국노무단, KSC(Korean Service Corps), 지게부대, 제2국민병, 전시 동원

<참고문헌>

1. 자료

「주한미제팔군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멧새-지」, 1951. 6. 17.

「일선노무자동원경비배부에관한건」, 1952. 5. 24.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3회 제14호」, 1952. 7. 28.

Chung Il Kwon, Major General, ROK Army Chief of Staff, Use of Indigenous Labor, 1951. 2. 21.

ROKA V CORPS G-4, STATUS OF LOGISTICAL SUPPORT TO KSC UNITS, 1951. 9. 11.

AFFE, 8086AU,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1951-July 1953, 1954.

COMMAND REPORTS FORTIETH INFANTRY DIVISION 340-INF(223) Narrative W/Supporting Doc Mar 1952, ANNEX1-3, 1952. 3. 10.

EUASK, UNCACK, Clothing and Equipage for the Korean Service Corps, 1951. 7. 13.

EUSA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7. 14.

EUASK,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1951. 10. 3.

EUSAK, Transmittal of Indigenous Labor Policy and New Wage Scale, 1951. 4. 14.

EUSAK, Additional Requirements for Winter Clothing for Korean Service Corps, 1951. 10. 12.

EUSAK,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EUSAK), 1952.

EUSAK, Korean Service Corps(KSC) Regulations, 1953. 1. 25.

EUASK, Revision to Labor Annex, G-4 Mission Brochure, 1953. 10. 30.

EUSAK,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The regimental medical company in Korea, vol.Ⅱ, 1953. 6.

EUSAK, Command Report, 1951. 1.
EUASK, Command Report, 1951. 6.
EUSAK, Labor Sec, Command Report, 1951. 9. – 1953. 7.
EUASK, Labor Sec, Command Report, 1952. 6.
EUSAK, Labor Sec, Recruiting Age for Korean Service Corps(KSC), 1951. 11. 28.
EUSAK, Labor Sec, Study on Mobilization of Manpower, 1952. 2. 12.
FEC & EUSAK(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Ⅰ–Ⅳ, 1955.
HQ Ⅰ CORP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 Corps IG Survey of Indigenous Labor, 1950. 10. 21.
JLCOM, Activities Report, 25 Aug 50 – 30 sep 50, 1950.
JLCOM, Logistic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25 August 1950 to 31 August 1951, 1952.
KMAG,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 Division, 1951. 6.
KMAG, Organization of Inspection Team to Korean Service Corps, 1951. 9. 12.
KMAG, Support of Korean Service Corps Divisions, 1951. 9. 14.
KMAG, Augmentation of Korean Service Corps(KSC), 1951. 10.
UNCACK, Payment of the Korean Service Corps, 1951.
I Corps, Ⅰ CORP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G Survey of Indigenous Labor, 1951. 10.
101ST DIVISION KSC OFFICE OF THE CENTER ADVISOR, REPORT ON DEFICIENCIES IN LOGISTICAL SUPPORT OF 101st DIV KSC, 1951. 9.
2nd Log Comd, Procurement Sec, Monthly Summary, 1952. 5.
2nd Log Comd, Command Report, 1951. 12.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1-6, 2004-2009.
육군본부 군사감실,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70-83, 1985.
US ARMY, FM 100-10 Combat Service Support, 1995.
US ARMY, Draft FM 51-1 The Logistical Command, 1950.
Gough, Terrence J.,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Hermes, Walter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7.
Montross, Lynn,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Ⅳ, US Marine Corps, Historical Branch, 1954.
Mossman, Billy C.,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US ARMY,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88.
Prewittcampbel, Ressell L., The Korean Service Corps, Army Logistician, US ARMY, 1999.

2. 논문

김병곤, 「한국전쟁 기간 중 한국노무단(KSC)에 대하여」, 『군사』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1.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8104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평화연구』 9,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0.
양영조, 「한국전쟁 시 노무동원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군사』 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6584
양영조, 「한국전쟁 시 한국노무단(KSC)의 운용과 성격」, 『군사논단』 54, 한국군사학회, 2008.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6584
윤시원, 「한국 징병제의 제도화와 국민개병주의의 형해화 1945~1964」,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p.67.
Lee, Michael J., "The Korean Service Corps Battalion", Army Sustainment November - December 2014, US ARMY, Logistics University, 2014. 10.

3. 단행본 및 기타자료

양양문화원, 『양양의 6·25 비화』, 2009.
육군예비사관학교 총동문회, 『豫友文集』, 2000.
조선일보사, 『민족의 증언』 2·4·6·7, 1983.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와 경제」, 2017.
6·25참전유공자회, 『6·25전쟁 참전수기3』, 2011.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영규, 『38선과 휴전선 사이에서』, 진인진, 2018.
김진휴, 『山河』, 정민사, 2012.
백대현, 『녹슨 파편의 사연들』, 이야기너머, 2015.
안토니 바벨, 데이비드 로차드슨, 아서 윌슨 저, 김남형 역, 『한국전쟁, 미군 병사들의 기록』, 도서출판백암, 2008.
Austin, Stephan D., Kim Tae Sam, United States Army Korean Service Corps, 2000.
Braim, Paul F., The Will to Win, Naval Institute Press, 2001.
Butcher, James, Korea: Traces of a Forgotten War, Hellgate Press, 2013.
Edward C. Keefer,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15(1952-1954),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Grehan, John, Mace, Martin, The Fall of Burma 1941-1943, Pen and Sword Military, 2015.

Fleet, Van, HOW WE CAN WIN WITH WHAT WE HAVE, LIFE, 1953.
Hughes, Dudley, Wall of fire: a diary of the third Korean winter campaign, Hellgate Press, 2003.
Martin, Harold H., Soldier: the memoirs of Matthew B. Ridgway, Harper, 1956.
Salmon, Andrew, To the last round, Aurum, 2009.
『경향신문』, 『동아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통일인문학연구단 통합서사 아카이브(www.tongil-konkuk.co.kr)
www.koreanwar-educator.org/memoirs

4. 구술자료

연번	성명	성별	생년	구술 장소	구술 일시
1	진○○	남	1936	경기도 의정부시	2018. 7.
2	홍○○	남	1934	강원도 양양군	2018. 7.
3	김○○	남	193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7.
4	이○○	남	193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7.
5	유○○	남	1932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8.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Service Corps(KSC) during the Korean War

Na, Sang-chul

This paper takes an overall look at the form and operation of the labor force mobilized during the Korean War,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Korean Service Corps(KSC) under the Eighth U.S. Army.

Despite the UN Forces' particip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war, the front line ended up being pushed down to the Nakdong River. Attempting to overcome this crisis, South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appealed to the whole nation for voluntary assistance in the war effort. However, due to the lack of legal basis for the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and laborers and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leading to men being conscripted on the streets, systematic mobilization was unable to be implemented. About one month after the war broke out, the "Special Measures Ordinance on Punishment" was enforced, laying down the legal basis for conscription and mobilization.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and floating population, systematic mobilization could still not be carried out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were difficult to implement.

The range of the Eighth U.S. Army's labor mobilization expanded across the country as the Incheon landing cleared the frontline and the military advanced northward. However, some of the refugees who were mobilized during the Nakdong River battle went missing while following the U.S. military northward. Moreover, problems such as the language barrier and the work efficiency of the Korean labor force were continuously made apparent, raising the need to organize the workforce. As the front lines again moved southward with the entry of the Chinese military and the conflict turning into a war

of attrition along the present-day demarcation line, the organization of the workforce was stepped up,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SC.

The creation of the KSC was not just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Eighth U.S. Army.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create a national all-out war system by combining the reserve and non-combat forces. It established the "National Defense Corps" in December 1950, but due to the so-called "National Defense Corps issue," the National Defense Corps was disbanded after half a year. The Korean Army, feeling the need for the systematic mobilization of the labor force throughout the war just like the Eighth U.S. Army, established the Fifth Corps, a reserve unit. It aimed to reabsorb personnel from the National Defense Corps to secure troops enough for five divisions. Meeting both the need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KSC was established with the Fifth Corps as its parent institution.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all labor organizations have been gradually dismantled, with some remaining as the current KSC.

Despite its distinctiveness, the KSC was termed the 'vacuum of Korean War research' because it had not received attention in either history or military studies at home or abroad. Therefore, this research's significance lies in finding historical significance b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ose who existed at the center of Korea's national tragedy.

Keywords : Korean Service Corps, KSC, Labor Unit, A-Frame Army, wartime labor mobilization